건 백 서(建白書)

귀의 삼종삼보(歸依三種三寶)하옵나이다
존경하는 귀하에게 백용성조사연보(白龍城祖師年譜)를 보내 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건백서(建白書)를 제출 하옵나이다.

우리나라 8백년 국운(國運)을 받을 지침서(指針書)가 이 백용성조사 연보 안에 들어 있사오니 필히 읽어 보시고 선근인연(善根因緣)을 지어 불퇴전의 신심(信心)과 확고부동한 원력(願力)으로 크나큰 보탬이 되어 주시옵소서.
백용성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묘년인 서기1999년도로부터 임오년인 서기2002년도 안에 우리나라 국운 8백년 대운을 받게 되어 이 복전(福田)을 형성하라 하시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운을 책임질 대통령, 국무총리, 3부요인,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 관광부 장관을 위시로한 제 장관, 제 간부, 제 직원, 국립 서울 문화재연구소 소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문화재위원, 국회의원, 위정자, 재벌, 장자, 거사, 학자, 선남자, 선여인 등 이시여!
관념(觀念) 세계의 승리자가 되시어 백용성조사 유훈 10사목이 잘 실현되어 우리나라 8백년 대운을 받는 복전(福田)을 이룩되게 하시옵소서.

국내적 으로는

一.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百濟佛敎初傳法輪聖地)이고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진원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산140번지 일대인 우면산 대성사 전통사찰이 복원 되는 인연을 지어, 백제불교가 국제불교에 이바지 하여 일본불교 전래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듯이, 이제에 이르러서도 일본·중국·네팔·인도 불교계를 위시로 하여 전 세계 불교계를 향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 백제불교가 세계화하여 그 은혜가 충만되게 하는 좋은 인연이 지어지게 하여 주소서. 특히, 서울 서초구 출신 국회의원과 서초 구청장을 위시로한 구청 간부 제 직원, 구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서울특별시장을 위시로한 시간부 제 직원,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유훈 10사목 중 제3조목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이고,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진원지인 이 성지를 잘 가꿀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거룩한 성지 우면산 대성사 도량내에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와 관련이 있는 하도낙서(河圖洛書) 주역원리가 나온 곳인 중국 하남성 회양현의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와, 우리나라 국호와 관련이 있는 마한· 진한· 변한인의 조상이신 기자조선 기자대왕과, 농사법의 창시적 조상이신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 우리나라 국태조 단군조선의 단군왕검(檀君王儉), 인문초조(人文初祖)이신 황제헌원씨(黃帝軒轅氏),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동양삼국인의 조상이신 단군 기자전, 태호 염제 황제전을 지어서, 역대의 군왕과 그 충신열사, 그리고 각 씨족의 근원조, 태시조, 시조, 비조, 파조, 공덕조 등의 그 위목을 모셔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원리로 동양삼국인의 형제애의 유대로 손과 손을 맞잡을 수 있고, 발과 발을 함께 맞추어, 거보를 내디딜 수 있는 근원지를 삼아 씨족의 원류를 통하여 민족사관을 재 정립하여 온 겨레의 중흥을 도모하자는, 이 길을 가르쳐 보이는 바 입니다. 그리고 불타조사전을 지어서 칠여래불과 칠십조사를 모셔서 불타조사의 원류를 통하여 세계 불교 중흥의 근원지로 삼자는 것을 가르쳐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자손만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리석음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지혜의 안목으로 살펴 성취되게 하여 주소서.

二. 호국호법도량(護國護法道場)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3리 887번지 일대의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天龍寺址) 석가만일 만인동참 참선·염불·간경·주력·불사 불교 5대수행 발원 교화 참회 도량으로 복원이 성취되어 자손만대에 길이 빛나는 복전(福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주시 출신 국회의원과 경주시 시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국립 경주문화재 연구소 소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경상북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유훈 10사목중 제6사목 제1항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 제4창 복원불사(第四創復元佛事)를 원만성취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된 연고인가 하면, 삼국유사 천룡사편에 이르시되 악 붕구(樂鵬龜) 중국 당나라 사신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이 천룡사가 파괴 되면 곧 나라가 망하리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대로 통일신라 말엽에 이 천룡사가 파괴 되더니, 통일신라가 망하였던 것입니다. 고려초 경주 최씨의 시조 고운·해운 최 치원 (孤雲·海雲 崔致遠) 선생님의 직계후손 최 제안공이 고려를 위하여 천룡사를 중창 복원하였던 것 입니다. 고려 말엽에 이 천룡사가 파괴 되더니, 고려가 망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왕조 초기, 무학대사가 노경에 이르러 그 제자를 보내어서, 조선왕조를 위해 이 천룡사를 제3창 복원(第三創復元) 하였던 것 입니다. 조선말엽에 이 천룡사가 파괴 되더니, 조선이 망하였던 것 입니다. 그리하여 백용성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단군조선 1천년 운이요, 기자조선 1천년 운이요, 마한·진한·변한에 이어 가야 5백년 운이요, 고구려·백제·발해·신라·통일신라 1천년 운이요, 고려 5백년 운이요, 조선왕조 5백년 운인데, 조선왕조 한양정도 6백년 만도인 갑술년 서기1994년도를 지나 기묘년 서기1999년도로부터 임오년 서기2002년도 안에 우리나라 8백년 대운이 오기는 오되, 세계 강대국의 종속국이 되는냐, 주인다운 주인국이 되느냐, 이 기로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인다운 주인국으로 온 겨레를 향도하기 위하여, 이 국운을 받는 동안에 천룡사 제4창 복원불사(第四創復元佛事)를 통하여 8백년 국운을 맞이하라 하시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 젖 먹던 힘을 다 기울여 이 국토에 책임질 만한 여러분들께 이에 이바지 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三. 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新羅佛敎初傳法輪聖地)이고 백용성조사 오도성지(悟道聖地)인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2리 347번지 일대인 아도모례원의 모례장자 옛집을 재현하여 신라시대의 조상의 얼을 이어받게 하여 주소서. 특히, 구미시 출신 국회의원과 구미시 시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북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문화재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유훈 10사목중 제4 조목인 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이고, 백용성조사 오도성지(悟道聖地)인 아도모례원의 모례장자 옛집을 재현하여 우리조상의 얼을 빛내, 자부와 긍지와 자존을 가지고,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 고유 전통 가옥으로 예술의 총화를 담아서 우리 민족문화의 조화를 세계 만방에 빛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동시에 용성조사의 견도(見道), 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 오도(悟道)는 모든 스님, 모든 종교인, 온 겨레가 다 함께 용성조사와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뜻으로 헤아리는 알음알이인 지적(知的) 미혹(迷惑)에서 벗어 버린 경지에 이르는 견도(見道)와, 용성조사와 같이 정(情)에 사로잡히지 않고 뜻(意)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수도(修道)를 마치고, 용성조사와 같이 하늘과 땅은 부처님의 몸이요, 산과 물은 그대로 조사의 마음임을 밝혀 아시고, 나는 부처님의 몸 속에서 살고, 나는 조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놀고 있는데, 어이타 악을 끊지 아니하랴, 어이타 선을 닦지 아니하랴. 나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여섯가지의 근본번뇌(根本煩惱)와 스무가지 따라 다니는 번뇌를 돌이키면 청정한 마음이니, 이 마음을 다스리는 무학도(無學道)의 경지에 노니면서 진실(眞實)의 지견(知見)이 열리어 보리도(菩提道)를 증오(證悟)한 오도(悟道)의 경지에 이르러, 이상세계로 향도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우리나라 국운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가 되어 봅시다.

四. 가야불교초전법륜성지(伽倻佛敎初傳法輪聖地)이고 신라 5교9산 선문(新羅五敎九山禪門)중 제8 봉림산선문(第八鳳林山禪門)인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176번지 일대인 봉림산 봉림사 봉림선당지(鳳林山 鳳林寺 鳳林禪堂址)의 복원불사가 이룩되게 하여, 저 신라시대에 5백 대도인이 출현하여 통일신라불교, 고려불교를 빛나게 하였듯이 이제에도 5백 대도인이 출현하여 이 세상을 밝고 맑고 빛나게 하는 인연을 지어지게 하여 주소서. 특히, 창원시 출신 국회의원과 창원시 시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국립 창원 문화재연구소 소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경상남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 유훈 10사목중 제1조목인 가야불교초전법륜성지이고, 신라 5교9산 선문 중 제8 봉림산선문인 봉림산 봉림사 봉림선당지 복원불사를 서둘러, 창원시의 몸은 생겼는데 창원시의 정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야 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넋 빠진 등신이라 하고, 정신은 말짱하고 육체가 없으면 유령이라 합니다. 맑은 마음, 건강한 육체, 풍요로운 물질생활인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장엄으로 봉림사 봉림선당지를 복원하여 우리 민족의 혼으로 삼고, 그 혼의 바탕위에 신라, 고려시대처럼 왕사(王師), 국사(國師)와 같은 수많은 도승 등이 출현하여 이 국토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계기로 삼자는 말입니다.

五.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白龍城)조사 탄생성지(誕生聖地)인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 일대의 생가복원 및 성역화 사업이 이룩되어 호국(護國)의 얼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선근인연(善根因緣)을 지어지게 하시옵소서.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백용성조사 생가 복원 및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동안 역대 장수군수등이 왜 하필이면 내 군수시절에 전(田)의 지목에다 어떻게 백용성조사 생가(生家)복원을 할 수 있겠는가. 꼭 생가(生家)를 복원하려거든 돼지 막을 짓고, 돼지를 3년 내지 4여 년간 키운 뒤에 지목을 대지(垈地)로 변경하여 복원하던지 할 일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겨 생가를 복원하려고 하는가? 라며 귀찮은 존재인양 회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 상두 장수군수께서 백용성조사연보를 낱낱이 잘 읽어 보고,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대광 유 종혁 거사의 용성조사 유훈 열가지 조목의 해설을 상세히 잘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역대 장수군수등이 못한 일을 내가 하리이다 하고, 분연히 일어나 용성조사 생가복원 성역화 대작불사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나이다. 다 같은 군수이지만, 그 관념(觀念) 세계의 패배자는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고, 그 관념(觀念) 세계의 승리자는 이와 같은 일을 성취되게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기묘년인 서기1999년도로부터 임오년인 서기2002년 안에 우리나라 국운 8백년 대운을 받게 되는 복전(福田)을 형성 할 수 있는 인연을 지었나이다. 특히 장수군 출신 국회의원과 장수군 군수를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군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전라북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성역화 사업을 통하여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여, 당시의 종교계로 우리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천도교,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불교계가 조선독립 민족대표 33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기미년 3·1 독립운동 조선민족대표 33인 서명에 있어서 제1번 서명에 천도교대표 손 병희 교주님, 제2번 서명에 기독교 장로회 길 선주 목사님, 제3번 서명에 기독교 감리회 이 필주 목사님, 제4번 서명에 불교대표 백 용성 조사님이 서명하시고, 용성조사께서 말씀하시되, 만해 한용운 자네는 저 공간을 뛰어 넘어 저 끝머리에 서명하시게 하니 만해 한용운 대사께서 흔쾌히 대답하시되, 용성 큰스님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하면서 공간백지를 뛰어 넘어 끝부분에 서명하니, 천도교 도사, 교사, 강사 등과 기독교 장로회, 감리회, 목사, 교역자 등이 크게 감명을 받고 차례대로 서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최 린 천도교 교사의 서명란에 이르러 한용운 대사의 서명란에 맞닿으니, 할 수 없이 홍 병기 천도교 강사가 한용운 대사의 서명란을 넘어서 서명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홍 기조 천도교 도사가 서명하여 조선민족대표 33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용성조사께서는 우리나라 국부(國父)로 추앙을 받을 조선독립운동의 막후 기둥이 되신 것입니다. 이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정신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1 정신을 재정립, 계승하여 우리민족이 나아갈 지표를 형성하는 도량을 이룩하자는 것이니, 백용성조사 생가 성역화 사업이 지속되어 지기를 간절히 발원하는 바입니다.

六. 백용성조사 제1차 출가성지(出家聖地)인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산16번지 지리산 교룡산성 덕밀암지(德密庵址)가 복원이 되어 호법(護法)의 얼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성조사의 제1차 출가성지인 남원 지리산 교룡산성 덕밀암은 동학(東學)을 창도한 수운 최 제우 대신사가 관의 탄압을 피해 포덕 2년 신유년인 서기1891년 2월 그믐날에 남원 교룡산성 덕밀암에 오시어 혜월 조실스님의 방인 은적당(隱寂堂)에서 온거 하면서 동학을 밝히는 논학문(論學文)을 집필하고, 등학의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典)의 내용을 정리하며 동학을 포교하였고, 뒷날 전라도 남원지역이 동학포교의 거점이 되어 동학농민운동이 바로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학교주 수운 최 제우 대신사께서 덕밀암 은적당에 온거 하셨고, 그 16년 이후에 용성진종(白龍城)조사가 이 덕밀암에 출가하시니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지안조사의 후신(後身)이 용성진종(白龍城)조사이시고 수운 최 제우 대신사의 법손(法孫)으로서는 천도교 손 병희 교주이었으니, 뒷날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당시에 백용성조사와 손 병희 교주의 만남은 선세로부터 정망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성지 덕밀암은 우리 민족정신 개벽에 진원지의 성역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남원시 출신 국회의원과 남원시 시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전라북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 제1차 출가성지 남원 지리산 교룡산성 덕밀암지가 잘 복원, 성역화 되어 우리 민족의 성지로 잘 가꾸어 보존 될 수 있도록 이에 이바지하는 눈 밝은 민족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七. 백용성조사 제2차 출가성지(出家聖地)인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 해인사 극락암 도량을 성역화 하여 호국호법(護國護法)의 종소리가 온 누리에 진동되게 하여 온 겨레, 전 인류 만 중생이 대각(大覺)을 성취하는 성불인연 되게 하여 주소서. 백용성조사 제2차 출가성지인 가야산 해인사는 고려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기에 법보도량(法寶道場)이라 합니다. 고려 팔만대장경의 권수가 6천 여권이 넘는데, 백용성조사께서는 각해일륜(覺海一輪) 한 권을 통하여 팔만사천 무진법문 6천 여권과 상통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야산 해인사 극락암을 성역화 하여 고승대덕 스님 등이 주석 하시어 온 겨레를 묵묵히 이상적 높은 차원의 경지로 향도 할 수 있는 복전을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합천군 출신 국회의원과 합천군수를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군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남도 도지사를 위시로한 도간부 제 직원, 도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 제2차 출가성지인 합천 가야산 해인사 극락암 도량을 성역화하여 민족중흥 불교중흥, 인류중흥, 종교중흥을 통하여 일체 중생 성불 인연(一切衆生成佛因緣)을 짓는 대작불사의 공덕주(功德主)가 되어지이다.

八. 백용성조사 창건도량(創建道場)이고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의 진원지이며 입멸도량(入滅道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번지, 2번지, 3번지를 중심한 동·서·남·북 일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정기가 함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이 서울 종로 대각사는 동편으로는 겉모습은 주택 민가이나, 그 내용은 금·은 세공 공방이 들어앉아 있고, 서편으로는 삼화페인트 건물과 그의 창고와 마당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가든 모텔과 백천장 등이 있고, 북쪽으로는 주택 등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대각사를 들어가자면, 삼화페인트 골목으로 직진하면 삼화페인트 창고 마당이 가로막아, 좌회전하자 바로 우회전하고, 바로 또 우회전하여, 바로 좌회전하자 일주문이고, 바로 대각사 도량 이어서 겨우 차 몇 대 세워 놓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할 수 있는 전당, 이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진원지를 성역화 하여 백용성조사 사상기념관을 건립하고 대각사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며, 참선·염불 ·간경·주력·불사·불교5대수행·발원·교화·참회 도량이 이룩되어 민족중흥과 불교중흥, 인류중흥과 종교중흥이 성취되게 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기획부 부장, 모든 간부진, 제 직원, 그리고 종로구 출신 국회의원과 종로구 구청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구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서울특별시 시장을 위시로한 간부, 제 직원, 시의회 의장을 위시로한 제 의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장을 위시로한 제 위원, 그리고 연관된 분들은 백용성조사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 조선독립운동 진원지이며, 백용성조사 입멸성지인 이곳 대각사를 성역화 하는, 남·북 전 국민을 대표하여 책임을 지고 이에 이바지 할 것을 가르쳐 보이는 바입니다.

국외적 으로는

九. 고구려불교초전법륜성지(高句麗佛敎初傳法輪聖地)인 중국 길림성 집안시(中國 吉林省 集安市) 성문사지(省門寺址) 이불란사지(伊弗蘭寺址)가 복원되도록 중국 정부측과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이룩되게 하여 주소서. 특히, 3부요인과 정부 당국자는 이 호소에 귀를 기울여 문호를 열어 그 자리에 있을 때 국제외교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 주소서.

十.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인 동양삼국(東洋三國)은 근원조(根源祖)인 단군왕검(檀君王儉) 기자대왕(箕子大王)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 황제헌원씨(黃帝軒轅氏)의 친손(親孫) 내지 외손(外孫)임을 자각(自覺)하여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원리로 상통하여 중국 하남성 신정시 희수 시조산(中國河南省新鄭市姬水始祖山)에 동양삼국인의 인문초조(人文初祖)이신 황제헌원중천각(黃帝軒轅中天閣)을 중국측의 신정시 염제황제문화연구회(炎帝黃帝文化硏究會)와 한국측의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白龍城祖師遺訓實現後援會)에서 합심 협력하여 건립중이오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찬탄의 박수를 보내주시어 동양삼국인(東洋三國人) 모두가 다 인문초조 황제헌원공손희씨(人文初祖黃帝軒轅公孫姬氏)의 친손 내지 외손임을 잘 알아서 동양삼국인(東洋三國人)이 모두 다 형제애로써 서로 교류가 되게 하는 인연을 지으시 옵소서. 특히, 3부요인과 정부당국자는 이 도리에 귀를 기울여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경제제일주의 일변도에 흐르지 말고 문화민족으로써의 자부와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씨족의 원류와 문화의 근원을 밝혀서 마음의 양식이 풍요롭게 하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동양삼국인이 씨족의 원류와 문화의 교류로써 남·북 통일의 기초를 닦고, 동·서 평화의 언덕을 삼을 수 있으므로 가르쳐 보이는 바입니다.

十一. 유사이래(有史以來) 동양삼국인(東洋三國人) 가운데 제일가는 충신 한 분을 천거하라고 한다면 기자대왕의 형님이신 상은왕손 비간공(商殷王孫比干公)이라 하겠습니다. 은(殷)나라 충신 비간공(比干公)과 같은 동양삼국인(東洋三國人)의 충신이 수 천 만명이 깨 쏟아지듯이 나와 동양삼국인(東洋三國人)이 모두가 다 충신이 되어 동·서 세계평화를 이룩하고저 중국 복건성 천주시 남안 관교진 내척촌(中國福建省泉州市南安官橋鎭內厝村)에 중국측 비간문화연구회(比干文化硏究會)와 한국측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白龍城祖師遺訓實現後援會)와 교류 상통하여서 비간전(比干殿)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다 함께 찬양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시어 수 천 수 만의 충신이 자손 만대에 이어지는 인연을 지어 태평성세가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十二. 용성진종(白龍城)조사께서 44세, 45세 되시던 해인 정미년 서기 1907년, 무신년 서기 1908년도에 중국에 건너가셔서 중국 불교의 법맥이 끊어져 버린 것을 자탄하고, 중국 하남성 신정시 희수 시조산에 올라 헌원황제(軒轅黃帝) 자손들과 함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형제애로 상통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중국 북경 관음사(中國北京觀音寺) 방장화상(方丈和尙)으로부터 해동(海東)조선의 제일가는 선지식(善知識)으로 존대를 받았던 것이니, 이 북경에 관음사(觀音寺)를 복원하여 국위(國威)를 선양(宣揚)하는 계기가 되는 인연을 지어 주시 옵소서.

十三. 백용성조사(白龍城祖師)께서 59세 되시던 해인 임술년 서기 1922년도와 백용성조사(白龍城祖師) 64세 되시던 해인 정묘년 서기 1927년도에 중국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 연길, 연변, 용정에 대각사 포교원, 그리고 선농당(禪農堂)을 이룩하여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고, 민족중흥과 불교중흥을 발원하신 조선족 자치주에 대각사 포교원의 복원불사가 성취되게 문호를 열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외교노선을 상통하여 독립운동의 진원지를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영세불망(永世不忘)케 하는 인연을 지어 주시옵소서.

十四. 부처님이 탄생하신(佛誕聖地)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大聖釋迦寺)가 한창 건립중이오니 부처님의 은혜를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사부대중(四部大衆), 칠중불자(七衆佛子)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연을 지어 자손만대에 길이 빛나는 복전(福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정부는 한화 1백 30억원을 지원하여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중국사원을 돋보이게 찬란하게 지어 놓아서, 국제적으로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 국민이 부처님의 은혜를 받아 문화민족이 되었으니, 참으로 의리가 있는 나라라고. 이 성지를 순례하는 전 세계 순례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정부도, 미얀마 정부도, 가난한 처지이지만 국비 지원으로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 석가사 법당 건립에 있어서 국비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3부요인과 정부 당국자에 호소를 거듭 거듭하는 바 입니다.

十五. 부처님이 성도(成道)하신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원과,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說法)하신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과, 부처님이 오래도록 주석(住錫)하신 인도 슈라바스티 기원정사와, 부처님이 입멸(入滅)하신 인도 구시나가르 사라쌍수원에 한국사원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는 인연을 지어서 문화민족의 선물을 주신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증명을 받고 하느님의 보우하심과 일체 천룡팔부 신중님의 옹호하심을 받아 생전(生前)에 수행(修行)하는 공덕으로 사후(死後)에는 기필코 저 천상세계인 하늘나라나 부처님의 세계인 정토(淨土) 안양국에 왕생(往生)하여 장차 열반락(涅槃樂)을 증득(證得)하여 지이다.
그리하여 이 용성진종(白龍城)조사 유훈 10사목(遺訓十事目) 부촉이 잘 실현되어 우리나라 8백년 국운을 잘 받아 자손만대에 길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처님과 보살님이 증명하여 주시고 하느님 신중님의 보우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건백서(建白書)를 제출 하옵나니, 경청 경청 지심경청(敬聽敬聽至心敬聽) 하여 주소서.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건데,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白龍城)조사연보를 잘 받아 읽어보시고, 잘 생각 하시어서 마음으로 잘 간직하여서 말과 몸의 행동으로 정성을 다하여, 본심(本心) 가까운데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복덕과 자비와 지혜를 내어 주시어 건백서의 내용이 성취되게 간절, 간절히 부처님께 기원 하옵고, 간절,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 드리고, 간절, 간절히 천룡팔부 신중님께 간구 하옵고, 건백서를 받아 보시는 힘있는 분들께 간절, 간절히 호소를 하옵나이다. 백용성조사유훈 열가지조목이 낱낱이 잘 실현되게 도와주시어 8백년 국운을 잘 받아 가져 자비(慈悲) 복덕(福德) 청정(淸淨) 진실(眞實) 지혜(智慧)로운 국토가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8백년 대운을 맞이하는 첫 해인 大覺應世 己卯年 서기1999년 1월 1일
백용성조사창건도량 기미년 3·1 독립운동진원지 백용성조사입멸성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 대각사(大覺寺)
조실겸주지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전화: 02-765-0972 팩스: 02-742-2126 우편번호 : 110-390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기미년 3·1독립운동진원지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 3동 산 140번지 전통사찰 우면산 대성사지(牛眠山 大聖寺址)
조 실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주 지 범망 정윤성 합장
신도회 회장 대광 유종혁 합장
거사림회 회장 월광 김용석 합장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회장 수승행 한명옥 합장
전화: 02-583-1475 팩스: 02-583-2700 우편번호 : 137-073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3리
석가만일만인동참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불사 불교5대수행 발원 교화 참회 도량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天龍寺址)
조실 겸 주지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원감 금강업 강순자 합장
화주 무량화 강금련 합장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부회장 관음주 김희자 합장
총무 법왕자 정미자 합장
기도부전 겸 노전 보승 백진환 합장
전화 : 0561-748-8815~7 팩스 : 0561-748-8818 우편 번호 : 780-850
백용성조사 유품 보존처 겸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봉안도량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443번지
경주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 부산 포교원
조 실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주 지 각현법신 강호숙 합장
신도회 회장 정혜월 백옥순 합장
명선회 회장 명선행 배영심 합장
전화 : 051-242-4234 팩스 : 051-244-8468 우편 번호 : 602-022
신라불교 초전법륜성지 백용성조사 오도성지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2리 347번지
아도모례원지(阿道毛禮園址)
원장 겸 조실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반야회 회장 원일화 김금화 합장
총 무 묘법화 김경희 합장
전화: 0546-474-0839 우편 번호 : 730-860
불탄성지 네팔 싯타르타 나가르 루판데히 룸비니원국제사원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大聖釋迦寺)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보리달마조사전법 제43세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白龍城)조사 법손
조실 불심도문 임윤화 합장
주지 각현법신 강호숙 합장
Korean Buddhist Mahabodi Society
Daesung Shakya Sa-Temple
Siddhartha Nagar Rupandehi Lumbini Nepal
전화 : 001-977-71-80123 팩스 : 001-977-71-80124